

## 청소년의 이분법적 사고 및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 무망감 우울증상의 매개효과\*

윤 미 혜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심 은 정<sup>†</sup>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이분법적 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 무망감 우울증상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히 이분법적 사고 및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가 무망감 우울증상에 의해 매개되는 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울산 지역의 중학생 544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자살생각 척도(K-BSI), 이분법 사고 지표(DTI-30), 역기능적 완벽주의척도(TPS), 무망감 우울증상 척도(HDSQ)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분법적 사고는 무망감 우울증상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무망감 우울증상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적 취약요인인 이분법적 사고 경향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관계, 이분법적 사고와 청소년의 자살사고와의 관계 그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무망감우울증상 및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이들 요인이 청소년 자살사고 예방 및 개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이분법적 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 무망감 우울증상, 자살생각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심은정,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Tel: 051-510-2159, E-mail: angelasej@pusan.ac.kr

최근 청소년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진재현과 고혜연(2013)의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 집단별 자살률 동향과 정책 제언'에 따르면 OECD 31개국의 아동·청소년(10~24세)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2000년 7.7명에서 2010년 6.5명으로 10년 새 16%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6.4명에서 9.4명으로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이 전국 16개 시·도 300여 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2 한국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3.4%의 청소년이 최근 1년 간 자살을 생각하였고, 이 중 14.4%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자살 사고 비율이 남학생보다(17.4%) 높았고, 학년별로는 중학생(29.3%)의 자살사고 비율이 초등학생(16.7%)이나 고등학생(24%)보다 높았다. 청소년의 자살사고 위험은 중학교 시기에 높아지는데, 한국 청소년상담원(2005)에서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살 생각을 처음 경험했을 때가 중학교라고 보고한 비율이 54.1%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 자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자살 사고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청소년기에 자살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더 높고, 15세에 자살 생각을 가졌던 청소년은 자살 생각이 없던 청소년에 비해 30세에 이르러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inherz, Tanner, Berger, Beardslee & Fitzmaurice, 2006).

선행연구는 청소년 자살 사고가 여러 환경적 요인과 정신건강요인 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자살생각과 관련된 69편의 논문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문동

규, 김영희, 2011) 청소년 자살생각에 관련된 가족환경 요인으로는 학대경험과 가정스트레스의 효과크기가 컸고, 학교환경과 관련해서는 친구관계스트레스와 학교생활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정문제 스트레스와 학교 스트레스는 자살충동의 예측요인이었다(정혜경, 안옥희, 김경희, 2003). 미국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종단연구에서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고립은 여학생들의 자살사고의 예측인자였고, 긴밀하게 연계된 학교 공동체는 남자청소년의 자살시도의 보호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Bearman & Moody, 2004). 선행연구는 또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문제해결 기술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박경, 2005; 박재연, 2009).

상기된 요인들과 더불어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중요한 정신건강 관련 요인으로는 우울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는 우울증이 강력한 자살사고의 예측인자임을 시사한다 (심미영, 김교현, 2005; 전영주, 2000; 정혜경, 안옥희, 김경희, 2003). 문동규와 김영희(2011)의 메타분석에서 우울은 자살사고의 심리적 유발 변인 중 효과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소년보호위원회(2003)의 청소년 자살 시도 환자의 분석에서는 자살시도 환자의 66%가 우울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서한나(2011)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5개년도 종단자료를 분석하여 초기 시점 자살생각은 초기 우울수준이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면서, 자살예방을 위해선 초기 우울 형성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이경진과 조성호(2004) 연구에서도 우울과 무망감은 자살생각의 유의한 관련 인자였다.

한편 우울증은 증상과 지속기간, 증상의 양상에 따라 다양한 하위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무망감을 특징으로 하는 우울증의 하위 유형인 무망감 우울증상은 청소년의 우울증을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소미, 이영호, 2004). 무망감우울증(Hopelessness depression)은 우울증의 한 이론인 무망감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무망감을 우울증의 가장 근접한 충분요인으로 가정하고 있다(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무망감이론은 소인-스트레스 모형(the diathesis-stress model)으로 우울증의 발병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우울한 개인은 부정적 생활사건을 우울생성적인 추론방식으로 설명하고 이로 인해 무망감을 경험하게 되며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망감은 부정적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 혹은 긍정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정의되며,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기대가 동반된다. 부정적 사건에 대한 우울생성적 추론은 그러한 기대가 일어날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개인이 무망감을 보일 경우 무망감우울증으로 발전된다(Abela & Seligman, 2000). 무망감우울증의 증상으로는 자발적 반응의 지연(동기증상), 슬픈 정동, 자살사고, 활력상실, 무감동, 정신운동지체, 수면장애, 집중력 어려움, 그리고 기분으로 인해 악화된 부정적 인지가 있다. 낮은 자존감과 대인의존성도 특정 조건하에서 증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Metalsky & Joiner, 1997). 무망감이론은 청소년의 우울증 연구에도 적용이 되었고 선행 연구들은 무망감이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e.g., 문동규, 김영희, 2011; Abela, 2001; Hankin, Abramson, & Mara, 2001.; Hammond &

Romney, 1995).

앞서 살펴본 청소년 자살 생각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인지적 특성 혹은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아론과 이영순(2011)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가 인지적 몰락에 의해 매개됨을 발견하였는데, 인지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자살 생각에서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llis와 Radliff(1986)는 자살 성향이 있는 사람은 역기능적 태도와 비합리적 생각과 같은 인지적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자살 사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역기능적 인지적 특성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들 수 있다. 황성훈(2007)에 따르면, 이분법적 사고는 사물이나 대상을 둘로 나누어 판단하는 양식이며 이에 따른 양극적 결론은 정서, 행동 등에서 극단성과 부적응을 초래하므로 정신 병리와 연관성이 높으며, 이분법적 사고의 정신병리 영역은 전반적인 부적응과 방어력의 약화, 부정적 정서, 분노와 소외의 경향, 기분이 들떠 있어서 충동 조절을 못하는 모습, 지각이 왜곡되고 사고 과정이 흩어지는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한다. 자살사고의 강력한 위험요인 이면서 이분법적 사고와 관련이 높은 정신 병리로는 우울증을 들 수 있다. 실제 Beck, Rush, Shaw와 Emory(1979/1997)는 우울한 사람의 체계적인 인지오류 중 하나로 이분법적 사고를 제시하였는데, '절대적인 이분법적 사고(absolutistic, dichotomous thinking), 혹은 실무울적 사고(all-or-none thinking)'는 경험을 양극단의 범주 중 한 범주로만 평가하는 경향으로 상황 혹은 대상을 흑백, 선악, 완벽이 아니면 결함투성이 등으로 판단하며,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도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범주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한다. Beck 등(1979/1997)은 우울한 사람들의 이러한 “광범위한 범주판단을 하고, 경험에 대해 극단적이고 일차원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 (p. 226), 사건을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우울증의 전형적인 관련인자라고 제안하였다. 유사하게 Levitt, Lubin, Brooks (1983)와 같은 인지이론가들은 우울한 개인은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특징지어진 부정적인 도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와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 자살, 우울, 무망감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비교적 일관되게 예측하는 대표적 취약성 요인으로는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들 수 있다(Adkin & Paker, 1996; Hamilton & Schweitzer, 2000; Hewitt, Flett & Turnbull-Donover, 1992). 실제 O'Connor (2007)는 완벽주의와 자살성간의 관계를 고찰한 논문에서 자기비판적 완벽주의(자기비판주의, 실수에 대한 염려 및 수행에 대한 의심)와 자살성과의 관계에 대한 상당한 증거들이 축적되어 있다고 제안한다. 대학생 집단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다(유상미, 이승연, 2008).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의 이분법적 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 우울과 자살 생각과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우선 이분법적 사고와 완벽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Beck(1967)은 완벽주의가 인지적으로 역기능적이며 그 주된 특징은 이분법적 사고라고 언급하였다. Flett, Russo, Hewitt(1994)는 완벽주의와 범주적 사고의 관계를 보고하였으며, Shafran, Cooper와 Fairburn(2002)은 부적응적이고 병리적인 완벽주의를 유지시키는 핵심적 요인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분법적 사고는 우울증, 자살, 섭식문제, 역기능적 완벽주의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만점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당사자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쫓기게 만들어서 부정적 완벽주의의 핵심 기제를 형성 한다(Burns & Fedewa 2005). 이분법적 사고와 우울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Beck 등(1979/1997)은 우울증 환자들의 의식을 범람하는 의미의 물결이 극단적이고, 부정적이며, 범주적이고, 판단적이기 때문에, 정서적 반응도 부정적이고 극단적이라고 하였다. 황성훈과 이훈진(2009)의 연구에서도 이분법적 사고와 우울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관련하여 우울증 환자의 극단적 사고 경향성과 역기능적 태도, 역기능적 태도와 극단적 사고경향에서의 저조한 변화는 더 단기간 내 우울증 재발을 예측했다(Beevers, Keitner, Ryan, & Miller, 2003). Teasdale, Scott, Moore, Hayhurst, Pope와 Paykel(2001)의 연구에서도 이분법적 사고는 우울을 유지시키는 핵심요인이라고 하였다. Neimeyer, Klein, Gurman,과 Greist(1983)는 우울증상이 더 심각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좀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분법적 사고는 자살경향성과도 관련있는 인지적 특성이다(e.g., Litinsky & Haslam, 1998; Wedding, 2000 cited in Ellis & Rutherford, 2008). 실제 Neuringer(1961)의 연구에서 자살시도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이분법적이고 실무울적 사고로 대하는 경직된 인지방식을 보였다. Hammond와 Romney(1995)의 연구에서도 자살경향성 집단은 정상군에 비해 높은 이분법적 판단 경향성을 보였다. 유사하게 Litinsky와 Haslam(1998)은 자살은 극단적인 행동 선택으로 그 바탕에는 삶과 죽음

의 이분법적 판단이 작용하며, 완벽주의, 섭식 문제, 우울증의 재발, 자살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이분법적 사고 경향성이 완벽주의와 우울 및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나 이들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며, 일부 국내 연구는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나 주로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e.g., 여환홍, 백용매, 2010; 하정희, 안성희,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분법적 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 자살생각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가 무망감 우울증상에 의해 매개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분법적 사고는 우울 및 자살과 관련된 주요한 인지적 취약성요인이면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핵심 기저를 형성하고,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무망감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무망감우울증상은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이분법적 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 무망감 우울증상과 자살 생각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무망감 우울증상은 청소년의 이분법적 사고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연구 문제 검증을 위해 울산광역시 소재

한 중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기재 오류나 응답의 일관성이나 성실성이 의심되는 등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56명의 자료를 제외한 544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이 68.9%, 여학생이 31.15였고, 학년별로는 1학년 46.8%, 2학년 39.3%, 3학년이 13.9%였다.

### 측정도구

#### 자살 생각 척도

자살생각은 Beck, Steer와 Ranieri(1988)가 성인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심각성을 측정하고 탐지하기 위하여 제작한 21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이해선과 권정혜(2009)가 한국어로 타당화한 한국판 자살생각척도 (Korean version of the 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이하 K-BS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판 자살생각척도(K-BSI)의 내적 합치도 지수(Cronbach's  $\alpha$ )는 .74였다. 자살시도와 그 빈도를 확인하는 두 문항은 총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총점은 1~19 문항의 합이며, 3점 Likert 척도상(0-2)에 응답하며, 총점은 0-38점까지 분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6로 나타났다.

#### 이분법 사고 지표

이분법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황성훈(2007)이 개발한 이분법적 사고 지표척도(Dichotomous Thinking Index-30 Revised: DTI-30)를 실시하였다. 총 30문항에 5점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상에 응답하게 되어있다. '양단 결정', '전부 대 전무의 사고', '성공 대 실패', '편가르기', '어법상의 이분법',

‘학업상의 이분법’으로 명명된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황성훈(200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 역기능적 완벽주의척도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남궁혜정(2002)이 여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들을 조합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들은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가 개발한 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MPS-F)을 현진원(1992)이 번안한 척도와,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H)를 한기연(1993)이 번안한 척도이다. 남궁혜정의 척도에는 기능적 완벽주의(즉, 성취 추구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즉, 실패 회피적 완벽주의)의 두 가지 하위요인이 포함되며, 각 요인 별로 20 문항씩, 총 4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상에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완벽주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을 때, 나는 그 일 전체를 다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나의 부모님은 나의 실수를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으신다’ 등이 있다. 역기능적 완벽주의 척도는 이차원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측정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무작위 할당방법(Little *et al.*, 2002)으로 2개의 측정변수로 문항 묶음(parcelling)하였다. 각 측정변수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76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6로 나타났다.

### 무망감우울증상척도

무망감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Metalsky와 Joiner(1997)가 개발하고 윤소미와 이영호(2004)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무망감우울증상척도(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Questionnaire: 이하 HDS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무망감 이론에서 가정하는 하위 증상들을 8개로 규정하고 이를 평가한다. 하위 증상에는 ‘동기적 결핍, 대인관계의 의존성, 정신운동 지체, 무에너지, 냉담/무쾌락, 불면증, 집중곤란/반추, 자살 충동’이 포함되며, 총 32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Beck의 우울증 척도(BDI)와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개의 하위척도는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무망감 우울증의 서로 다른 증상들을 측정하게 된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0-3점 척도 상에 평정하며, 높은 점수가 증상의 심각도를 반영한다. 윤소미와 이영호(2004)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93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였다.

### 자료분석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하기에 앞서 각각의 지표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변량 왜도, 첨도지수를 검토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링에서 2단계 분석방법에 따라 먼저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후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가정한 구조모형에 대해 구조방정식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적합도 지수 중 GFI, CFI,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또한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잠재변수간의 직·

간접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구조모형 검증의 적절성을 보기 위해 연구 변수들의 정규분포성을 검토하였고(표 1), 본 연구의 자료는 첨도가 7 왜도가 3보다 크지 않으면 추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이분법적 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 무망감 우울 증상 및 자살생각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표 2)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이분법적 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무망감 우울증상은 모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법적 사고와 무망감 우울증상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403$ ), 자살 생각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r=.321$ ). 역기능적 완벽주의 역시 무망감 우울증상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r=.450$ ) 자살 생각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308$ ).

### 측정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전체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 개념 및 선행연구에서 측정도구의 다차원성이 제시된 구성개념(construct)을 대상으로 측정항목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분석을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3과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표 3을 살펴 보면, RMSEA가 0.08보다는 크나 0.1이하로 적

표 1. 연구변인 기술통계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살생각	544	.23	.24	1.495	2.426
이분법적 사고	544	1.24	.76	.091	-0.105
역기능적완벽주의	544	1.19	.86	.245	-0.68
무망감우울증상	544	.51	.44	1.419	3.417

표 2. 이분법적 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 무망감 우울증상 및 자살생각간의 상관관계 (N=544)

	자살생각	이분법적 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	무망감 우울증상
자살 생각	1			
이분법적 사고	.321 (**)	1		
역기능적 완벽주의	.308 (**)	.826 (**)	1	
무망감 우울증상	.556 (**)	.403 (**)	.450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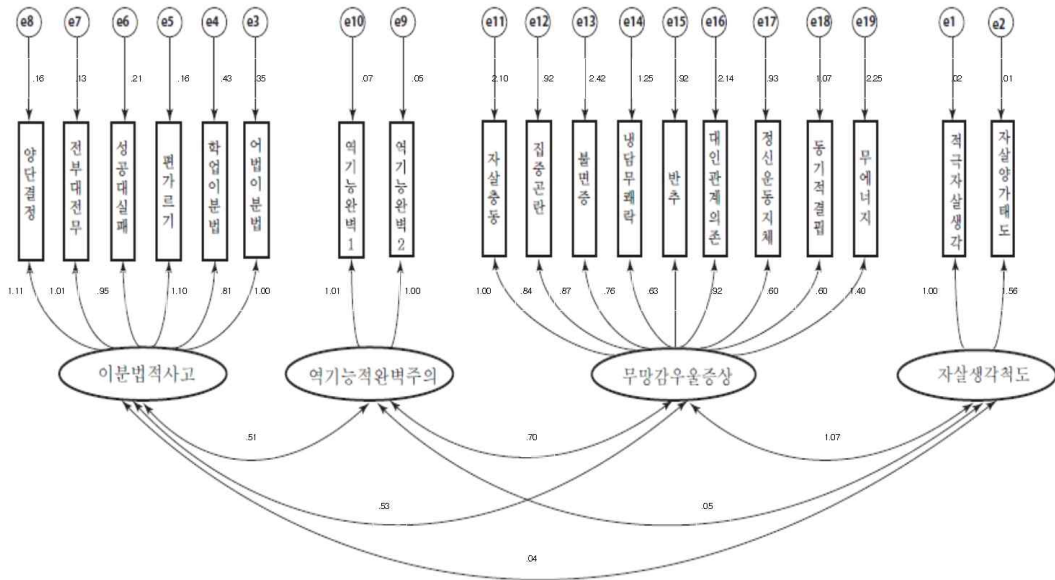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합도가 Steiger(1990)가 제안한 최소적합수준에는 도달하고 있다. CFI지수가 0.92, TLI지수가 0.90로 0.9를 넘어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GFI, AGFI, CFI, NFI 등은 0.9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Browne & Cudeck, 1993).

잠재 변수가 상관이 .80이상이면 두 개의 잠재변수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어 변별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 간 상관이 모두 .04~.69로 잠재변수간 상관이 .80이상인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변별 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모형 분석 결과(표 5) 대부

분의 경로값이 유의수준  $p < .001$ 로 모두 채택되었으며, 대체로 개념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하나의 구성 개념에 대한 2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에 관한 것으로 수렴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표준화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의 크기,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이하 AVE)이 있다(이학식, 2007). 표준화 요인 부하량의 크기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의 요인 부하량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p < .05$ ), 측정변수들 간에는 수렴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측정변수들의 표준

표 3. 측정모형 적합도 - 구조방정식 확인적 요인 분석모형

Model	$\chi^2$	df	p	CMIN/DF	GFI	CFI	TLI	RMSEA
기본모형	856.67	146	0.00	5.87	0.85	0.92	0.91	0.09



표 4. 잠재변인 간 상관 추정결과

			<i>Estimate</i>	<i>S.E.</i>	<i>C.R.</i>
자살생각척도	<—>	이분법적사고	0.041	0.006	6.654***
자살생각척도	<—>	역기능적완벽주의	0.046	0.007	6.714***
자살생각척도	<—>	무망감우울증상	0.169	0.018	9.315***
이분법적사고	<—>	역기능적완벽주의	0.506	0.039	13.046***
이분법적사고	<—>	무망감우울증상	0.529	0.066	8.077***
역기능적완벽주의	<—>	무망감우울증상	0.699	0.075	9.34***

표 5. 확인적 요인분석모형 경로 타당성 검정 결과

잠재변수 및 측정변수			<i>B</i>	$\beta$	<i>S.E.</i>	<i>C.R.</i>	<i>P</i>
적극자살생각	<—	자살생각척도	1	0.784			
자살양가태도	<—	자살생각척도	1.561	0.94	0.096	16.191	***
어법이분법	<—	이분법적사고	1	0.768			
학업이분법	<—	이분법적사고	0.809	0.66	0.05	16.086	***
평가르기	<—	이분법적사고	1.097	0.891	0.048	23.098	***
성공대실패	<—	이분법적사고	0.949	0.827	0.045	21.031	***
전부대전무	<—	이분법적사고	1.008	0.897	0.043	23.301	***
양단결정	<—	이분법적사고	1.11	0.895	0.048	23.225	***
역기능완벽2	<—	역기능적완벽주의	1	0.967			
역기능완벽1	<—	역기능적완벽주의	1.009	0.953	0.021	48.055	***
자살충동	<—	무망감우울증상	1	0.761			
집중곤란	<—	무망감우울증상	0.843	0.83	0.041	20.551	***
불면증	<—	무망감우울증상	0.872	0.69	0.053	16.571	***
냉담무쾌락	<—	무망감우울증상	0.758	0.755	0.041	18.394	***
반추	<—	무망감우울증상	0.631	0.745	0.035	18.103	***
대인관계의존	<—	무망감우울증상	0.922	0.731	0.052	17.715	***
정신운동지체	<—	무망감우울증상	0.595	0.723	0.034	17.482	***
동기적결핍	<—	무망감우울증상	0.608	0.706	0.036	17.024	***
무에너지	<—	무망감우울증상	1.397	0.845	0.067	21.002	***

화 요인부하량은 최소 0.5이상이어야 하고, 0.7이상이면 바람직하다(이학식, 2007). 본 연구의 변수는 대체로 표준화 경로계수가 0.7이상이고, 둘째, 평균분산추출값의 크기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균분산추출값(AVE)은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제공한 값들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크기가 0.5이상이면 수렴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이학식, 2007). 각 잠재 변수마다 AVE (분산추출지수)를 계산한 결과 자살생각척도는 0.75, 이분법적사고 0.69, 역기능적 완벽주의 0.92, 무망감 우울증상 0.57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분법적 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무망감 우울증상의 매개효과 검증**

무망감우울증상이 이분법적 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적합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 중  $\chi^2=397.4$ ,  $df=126$ ,  $p=0.00$ ,  $Q(CMIN/DF)=3.16$ ,  $GFI=0.92$ ,  $CFI=0.96$ ,  $TLI=0.96$ ,  $RMSEA=0.06$ 으로 적합도 지수는 RMSEA가 0.08 이하로 적합도가 높은 수준

이다.

무망감우울증상이 이분법적 사고 및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를 검증한 결과(표 6), 이분법적 사고와 무망감 우울증상의 경로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이분법적 사고가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반면,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무망감 우울증상을 매개하여 ( $p<.001$ ),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 간 영향의 크기인 총 효과와 직접효과,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분법적 사고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에서 직·간접효과가 .184로 나타났으나, 이분법적 사고가 무망감 우울증상의 경로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이분법적 사고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자살생각에 대한 직·간접효과는 각각 -.0047, 0.249로 나타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무망감 우울증상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2).

표 6. 모형의 검증 결과

잠재변수 및 측정변수		B	$\beta$	S.E.	C.R.	P
무망감우울 증상	<- 이분법적 사고	0.11	0.05	0.21	0.53	0.60
무망감우울 증상	<- 역기능적 완벽주의	0.93	0.45	0.19	4.96	.00***
자살생각	<- 무망감 우울증상	0.06	0.55	0.01	12.29	.00***
자살생각	<- 이분법적 사고	0.04	0.16	0.02	2.05	0.04*
자살생각	<- 역기능적 완벽주의	-0.01	-0.05	0.02	-0.59	0.56

\*\*\* $p<.001$ , \* $p<.05$

표 7. 연구 변인 간 효과 크기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이분법적사고	→	무망감우울증상	0.048	0.048
이분법적사고	→	자살생각척도	0.184	0.157
				(CI: .207-.325, $p=.01$ )
역기능적완벽주의	→	무망감우울증상	0.454	0.454
역기능적완벽주의	→	자살생각척도	0.203	-0.047
				(CI: .216-.318, $p=.012$ )
무망감우울증상	→	자살생각척도	0.549	0.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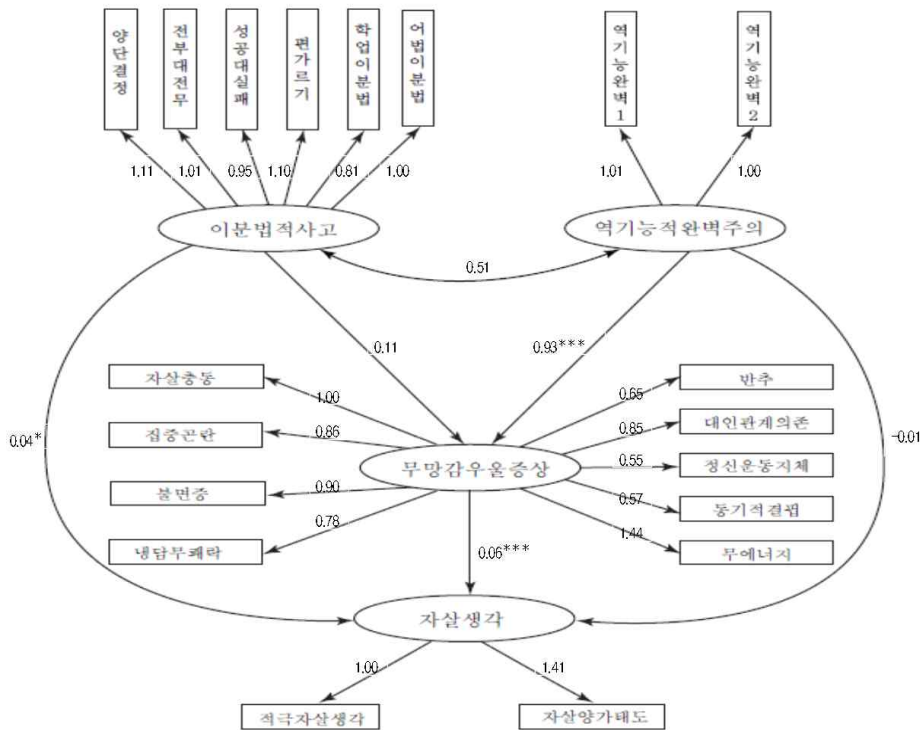


그림 2. 이분법적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 무망감우울증상과 자살생각간의 관계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분법적 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 무망감우울증상과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이분법적 사고 및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가 무망감 우울증상에 의해 매개되는 지를 검증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의 이분법적 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 무망감 우울증상과 자살생각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법적 사고와 역기능적 완벽주의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분법적 사고는 부정적 완벽주의의 핵심 기제를 형성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부합하는 것이다(Burns & Fedewa 2005). Shafran, Cooper와 Fairburn(2002)도 부적응적이고 병리적인 완벽주의를 유지시키는 핵심적 요인이 이분법적 사고라고 제안했는데, 완벽주의자들은 결과를 완전한 성공 아니면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적응적인 면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는 완벽주의의 수행에 대한 높은 기준과 함께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라는 이분법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Egan, Piek, Dyck과 Rees(2007)는 이분법적 사고는 부정적 완벽주의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완벽주의와의 관계는 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이분법적 사고가 부정적 완벽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분법적 사고 수준이 높을수록 무망감 우울증상과 자살 생각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살과 관련된 인지적인 특성 요인으로 인지적 경직성, 이분법적 사고, 완벽주의 등이 있다고 한 선행연구(Ellis & Rutherford, 2008) 및 이분법적 사고는 우울을 유지시키는 핵심요인이라고 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Teasdale, Scott, Moore, Hayhurst, PoPe, & Paykel 2001). 관련하여 Hammond와 Romney(1995)는 청소년 우울증에 기여하는 인지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울증 진단받은 청소년, 우울 경향성이 있는 청소년집단과 우울증이

없는 청소년 세 집단을 대상으로 청소년 우울증에 기여하는 인지적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임상적인 우울증 청소년 집단에서 더 낮은 자존감, 더 높은 비관주의 및 사회적 고립 및 외적 통제성향과 더불어 더 빈번한 극단적 해석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황성훈과 이훈진(2009)의 연구에서도 이분법적 사고와 우울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이분법 사고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Litinsky와 Haslam(1998)의 연구에서도 이분법적 사고는 우울증, 자살과도 관련이 있었다. 인지 이론적 관점에 따르면 상황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는 극단적인 정서반응 및 극단적인 행동을 발생시킨다(Beck & Freeman, 1990). 삶의 경험들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은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의 이동이 보다 쉽게 일어나도록 한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가 극단적인 자살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분법적 사고,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무망감 우울증상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이분법적 사고와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니면서 자살생각에 직·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Burns와 Fedewa(200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무망감 우울증상의 매개 효과 검증에서 이분법적 사고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분법적 사고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적 특성임을 확인했다.

또한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무망감 우울증상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벽주의는 자살과 관련된 인지적 취약성으로 강조되는 무망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Hunter &

O'Conner 2003),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우울을 높인다는 Rice, Ashby와 Slaney(1998)의 연구결과에도 부합한다.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무망감과 우울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살사고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사고에 대한 무망의 직간접 효과도 유의했다(최바울,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관련하여 153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희망 및 우울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과 비완벽주의자들과 희망과 우울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희망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Ashby, Dickinson, Gnilka, & Noble, 2011).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 생각에 미치는 인지적 취약적 요인인 이분법적 사고와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무망감 우울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 일부 개입법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우울증 및 자살사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치료는 청소년기의 우울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Reinecke, Ryan, & Dubois, 1998), 평가염려 완벽주의적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 감소에 효과적이었다(김현정, 손정락, 2007). 또한 마음챙김 청소년 자살방지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우울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도연, 손정락, 2012).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분법적 사고와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분법적 사고와 역기능적 완벽주의, 자살생각 및 무망감우울증상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초기 이해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절차를 사용하여, 특정 지역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 집단이나 임상집단에 대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또한 이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발달 단계의 추이에 따른 인지능력 증가에 따른 이분법적 사고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도연, 손정락 (2012). 마음챙김에 기반한 청소년 자살방지 프로그램이 자살사고, 우울 및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2), 323-339.

김향초 (1993). 청소년 자살의 심리사회적 요인 분석 및 예방대책 연구, *청소년학연구*, 1(1), 167-181.

김현정, 손정락 (2007). 인지행동치료가 평가염려 완벽주의적인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805-826.

남궁혜정 (2002). 성취추구적 완벽주의 및 실패 회피적 완벽주의와 부적응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동규, 김영희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상담학연구*, 12(3), 945-96.

박 경 (2005).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

- 적 지지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31-147.
- 박광배·오경자·신민섭 (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86-297.
- 박재연 (2009).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구조적 관계 검증: 보호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0), 249-272.
- 서한나 (2011). 초기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에 관한 중단연구: 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629-646.
- 설희정, 이동귀, 배병훈 (2014). 중학생의 사회 부과 완벽주의가 대인불안에 이르는 경로 탐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비합리적 신념'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2), 335-353.
- 심미영, 김교현 (2005). 한국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과 발달 시기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313-325.
- 여환홍, 백용매 (2010). 경계선적 성격특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우울이 자살관련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1047-1066.
- 유상미, 이승연 (2008). 대학생의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관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애착 유형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19-136.
- 윤소미, 이영호 (2004). 한국판 무망감 우울증상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1051-1063.
- 이경진, 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 이학식 (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6.0. 서울: 법문사.
- 이혜선, 권정혜 (2009). 한국판 자살생각척도(K-BSI)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1155-1172.
- 하정희, 안성희 (2008).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스트레스, 대처방식, 완벽주의, 우울, 충동성의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49-1171.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청소년 자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제 1회 청소년 자살 예방 세미나.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국내 청소년 자살관련 실태조사.
-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2). 한국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황성훈 (2007). 정신병리에서의 이분법적 사고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성훈, 이훈진 (2009). 이분법적 사고와 MMPI-2로 측정된 정신병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1), 1-14.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영주 (2000). 청소년의 자살 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7(1), 221-246.
- 정혜경, 안옥희, 김경희 (2003). 청소년의 자살

-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2), 107-126.
- 진재현, 고희연 (2013).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집단별 자살률 동향과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통권*, 195 (2013.1), 141-154.
- 최바울,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부적응적 완벽주의, 무망, 우울, 심리적 극통 및 자살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93-716.
- 최아론, 이영순 (2011). 고교생의 학교계열, 생활스트레스 요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인지적 몰락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61-784.
- Abela, J. R. Z. (2001).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a test of the diathesis-stress and causal mediation components in third and seventh grad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3), 241-254
- Abramson L. Y., Metalsky G. L., & Alloy L. B.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 358-372.
- Adkins, K. K., & Parker, W. (1996). Perfectionism and Suicidal Preoccupation. *Journal of Personality*, 64(2), 529-543.
- Ashby, J. S., Dickinson, W. L., Gnilka, P. B., Noble, C. L. (2011). Hope as a Mediator and Moderator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9(2), pp, 131-139.
- Bearman, P. S., & Moody, J. (2004). Suicide and friendships among American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1), 89-95.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 New York: Harper & Row.
- Beck, A. T., & Freeman, A.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ck, A. T., Rush, J., Shaw, B. F., & Emery, G. (1997). 우울증의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원호택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79년에 출판).
- Beck, A. T., Steer, R. A., & Ranieri, W. F. (1988). Scale for suicide ideati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self report ver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499-505.
- Beevers, C., G., Keitner, G., I., Ryan, C., E., & Miller, I. W. (2003). Cognitive predictors of symptom return following depression trea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3), 488-49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 of Assessing Models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rns, L. R., & Fedewa, B. A. (2005). Cognitive styles: Links with perfectionistic think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8, 103-113.
- Egan, S. J., Piek, J. P., Dyck, M. J., & Rees, C. S. (2007). The role of dichotomous thinking and rigidity in perfectionism,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8), pp. 1813-1822.
- Ellis, T. E., & Ratliff, k. G. (1986). Cognitive characteristic of suicidal and nonsuicidal psychiatric inpati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6), 625-634.

- Ellis, T. E., & Rutherford, B. (2008). Cognition and Suicide: Two Decades of Prog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1*(1), pp. 47-68.
- Flett, G. L., Russo, F.A., & Hewitt, P. L. (1994).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constructive thinking as a coping response.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2*(3), 163-179.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Hamilton, T. K., & Schweitzer R. D. (2000). The cost of being perfect: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4*, 829-835.
- Hammond, W. A., & Romney, D. M. (1995). Cognitive factors contributing to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6), 667-683.
- Hankin B. L., Abramson L. Y. & Mara S. (2001). A Prospective test of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in adolescenc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607-632.
- Hewitt, P. L., Flett, G. L., Turnbull-Donovan, W., & Mikail, S. F. (1991).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Reliability,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in psychiatric samples.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64-468.
- Hewitt, P. W., Flett, G. L., & Turnbull-Donovan, W. (1992). Perfectionism and suicide potential.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181-190.
- Hunter, E. C., & O'Conner, R. C. (2003). Hopelessness and future thinking in parasuicide: The role of perfectionism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355-365.
- Levitt, E. E., Lubin, B., & Brooks, J. M. (1983). *Depression: Concepts, controversies, and some new facts*. Hillsdale, NJ: Erlbaum.
- Litinsky, A. M., & Haslam, N. (1998). Dichotomous thinking as a sign of suicide risk on the TA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1*, 368-378.
- Metalsky., G. I., & Joiner, Jr., T. E. (1997). The 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3), 359-384.
- Neimeyer, R. A., Klein, M. H., & Gurman, A. S., & Greist, J. H. (1983). Cognitive structure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British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 65-73.
- Neuringer, C. (1961). Dichotomous evaluation in suicide individual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5*, 445-449.
- O'Connor, R. C. (2007). The Relations between Perfectionism and Suicidality: A Systematic Review,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7*(6), 698-714.
- Reinecke, M. A., Ryan, N. E., & Dubois, D. L. (1998). Cognitive-Behavioral Therapy of Depression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A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7*(1), 26-34.
- Reinherz, H. Z., Tanner, J. L., Berger, S. R., Beardslee, W. R., & Fitzmaurice, G. M. (2006).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s



- Predictive of Psychopathology, Suicidal Behavior, and Compromised Functioning at Age 30.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3(7), 1226-1232.
- Rice, K. G., Ashby, J. S., & Slaney, R. (1998).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304-314.
- Shafran, R., Cooper, Z., & Fairburn, C. G. (2002). Clinical perfectionism: A cognitive-behaviou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773-791.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 Teasdale, J. D., Scott, J., Moore, R., G., Hayhurst, H., Pope, M., & Paykel, E. S. (2001). How does cognitive therapy prevent relapse in residual depression? Evidence from a controlled tri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3), 347-357.
- Wedding, D. (2000). Cognitive distortions in the poetry of Anne Sext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 140-144.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 56-75), Newbury Park, CA: Sage.

원고접수일 : 2014. 10. 10.

수정원고접수일 : 2014. 12. 22.

최종게재결정일 : 2014. 12. 25.

## The Relationship among Dichotomous Thinking,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Mi Hye Yun<sup>1)</sup>

Eun-Jung Sh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dichotomous thinking,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ts and to examine whether the relationships among dichotomous thinking,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were mediated by 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 total of 544 middle school students in Ulsan, South Korea completed questionnaires assessing Suicide Ideation (The Korean version of the 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Dichotomous Thinking (Dichotomous Thinking Index-30 Revised), Dysfunctional Perfectionism (Two-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and 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Questionnaire). Suicide ideation, dichotomous thinking,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Hopelessness depress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but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ichotomous thinking and suicide ideation and dichotomous thinking had a direct impact on suicide ideation.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dichotomous thinking,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might be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in the evaluation and treatment of suicide ideation in the adolescent population.

*Key words* : Suicide ideation, dichotomous thinking, dysfunctional perfectionism, hopelessness depression